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치매 국가책임제가 추진된다. 방문건강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일·가정 양립과 좋은 일터 만들기가 중점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했다.

국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선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간호 및 보건 의료, 여성, 일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힘쓴다.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2017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2018년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 검사를 급여화한다.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도 확대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0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기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예방 중심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꾸어 도입 등 건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좋은 일터 만들기 주력
민간단체 남북교류 확대

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에 힘쓴다.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한다. 환자 의료-회송 분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격차 해소**= 의료취약지에 300명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2022년까지 확충한다. 공중보건 장학제도 시범사업을 2019년에 실시한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을 2022년까지 확대한다. 권역 외상센터 확대,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매년 어린이 집을 대폭 확충해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한다. 20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 휴직급에 2배 이상, 2018년부터 아바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한다.

△**재난 안전관리**=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젠더폭력(성·가정·여성보복 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 치안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노동존중 좋은 일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2018년에 마련해 시행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 및 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민간인만 인용 가능한 경력개발형 직위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직사회 사기제고를 위해 육아시간, 휴직수당, 대체공휴일을 2018년까지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를 2022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남북교류 활성화**= 교육·학술·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 및 제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통일센터를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설치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유적급에 2배 이상, 2018년부터 아바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한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넷째)이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왼쪽에서 둘째)을 비롯한 7개 보건계약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 김옥수 간협 회장, 간호현안 건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계약단체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8월 8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한지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시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정책 하나하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된다"면서 "직능단체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 건강'을 상위 가치로 두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상호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각 단체의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수 회장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사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면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 풀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간호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의료사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공병원 등 인력이 부족한 곳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초고령사회 및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방문간호사의 역할과 제도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용률이 2%도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의료기관 가정간호도 제약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방문간호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다양한 간호정책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파독간호사들의 도전과 삶의 이야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시 열려

파독간호사들의 위대한 도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시 열리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 독일로 간 한국 간호 여성들의 이야기'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6월 26일 개막해 일반에게 공개했으며, 오는 9월 3일까지 열린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이번 전시는 1960~1970년대 분단국가의 수도 서울을 떠나 또 다른 분단국가인 독일, 특히 장벽으로 단절된 서베를린에서 활동한 파독간호사들의 삶을 중심으로 조명했다.

△1부 국경을 넘어선 여성들 △2부 이주와 소통의 길, 베를린에서의 삶 △3부 남은 이들과 돌아온 이들 △4부 상호문화사회의 여성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과 독일이 노동력을 송출하고 유입하게 된 배경, 간호사들이 독일행을 선택한 계기와 준비과정을 관련 유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2부에서는 파독간호사들의 경험을 '이주-국경의 경계를 넘어, 분단-이념의 경계를 넘어'라는 구성으로 아카이브 전시 방식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3부에서는 독일 교민 1세대를 형성한 파독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작가들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보여준다. 2세대들이 보는 어머니의 모습도 다뤘다.

4부에서는 독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베를린시의 상호문화사회 정책 속에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전시 기획팀에게 파독간호사와 관



파독간호사들의 삶을 조명한 기획전시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 전시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 관람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련된 자료를 제공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을 7월 26일 만난 자리에서 "파독간호사들의 도전과 열정의 삶을 보여주는 뜻깊은 전시를 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협회가 추진해오고 있는 간호역사박물관 찾가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송인호 관장은 "이번 전시에 각계각층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다양한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역사 자료집과 화보집을 발간하고, 간호표석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래어달메디컬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입하신 장비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드립니다



- ✓ 시뮬레이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작동과 장비 운영 기술은 시뮬레이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우수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고객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검증된 기술지원서비스로 고객의 장비에 관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관리 체계로 지속적인 환자 치료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5년** 시뮬레이터 보증 기간 연장: 구매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X** 소모품 교체 패키지: 대부분의 주요 소모품 (PM) 혹은 가장 빈번히 소모되는 제품 교체 (PM Lite) 중 택 1 가능
- 24h** 최우선 전문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최우선 전문 수리 (24시간 이내 방문)
- 무상 대여 서비스**: 학기 중 장비 입고 수리 시 무상 대여 서비스
-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시스템 운영 (년 2회)
- 예산 편성 계획표**: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표 제출